

신승훈 “귀공자 이미지? 가끔씩 일탈도 꿈꾸지만”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가수 신승훈(54)이 '발라드 귀공자' 이미지 등 쟁쟁한 이미지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신승훈은 지난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으로 온라인 인

터뷰를 진행하고 3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마이 페르소나스' (My Personnas)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신승훈은 귀공자, 쟁쟁한 이미지에 대해 "저도 일탈을 꿈꾼다. 그런데 제가 그럴 사람이 못 되는

올해 데뷔 30주년 맞아 스페셜 앨범 '마이 페르소나스' 발표
"발라드 안하면 이상하다가도 해...제게 애증 같기도" 고백

것 같다. 모험심도 없다"면서 "가끔씩 일탈을 꿈꾼다. 망가져보고 싶기도 하다. 어떤 분들은 '신승훈씨는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고 또 관리가 철저할 거라 생각한다. 사실 그런데 관리는 30년동안 못한다. 원래 제가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행동해왔던 것이다. 만약 실제 성격과 보여지는 성격이 달랐으면 들켰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 나이에 영혼이 맑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좀 맑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야 좋은 음악이 나오고 또 다른 걸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나. 어머님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저는 참 무난한 스타일"이라며 웃었다.

신승훈은 자신의 수석어중 '국민 가수' '발라드 황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제가 맘보도 하고, 뉴잭스윙도 해보고, 디스크도 해봤는데 사람들 속에는 좋았던 기억이 발라드 부를 때였던 것 같다. 그래서 발라드만 했던 사람, 발라드 황제 이런 것만 남았다. 그게 족쇄같기도 하다. 제가 발라드 안 하면 이상하기도 하더라. 발라드는 제게 애증 같기도 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다. 발라드하면 신승훈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거에 제가 보답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국민 가수' 호칭은 92년, 93년도 즈음에 한 기자가 써서 그 수석어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엔 제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 가사에 '그리움 때문이야'라는 가사 때문에 어른들이 '겨야'라고 부르기도 하셔서 그렇다. 지금은 방송 나가면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른다. 국민 가수가 아닌 것 같다. 하하. 그렇다고 더 노력해서 국민가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제는 '노래 좀 갖고 놀았던 뮤지션'으로 남고 싶은 게 제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신승훈은 '30년 전과 비교해서 가요계가 달라진 것이 있나'는 질문에 "제가 데뷔할 때 아시다시피 연예계가 '음악중심' 세대였던 것 같다. 모든 쇼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어마했었는데, 웬만한 프라임대에는 가요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고 연말에 가요 공연도 많았다"고 회상했다.

또 "어느 가수의 앨범이 나오면 누구 나온다고, 레코드 점 앞에

다들 줄 서 있고 포스터가 다 나가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동네 어디 레코드점을 가서 사야 하지 생각한다. 동네에 레코드점이 없다. 지금은 LP 앨범 시절이 아니고 음원 시대이다. 그래서 '노래를 듣자'가 아니고 '노래나 들을까' 이런 말이 나온다. 지금은 바쁜 생활 속에서 위안받고, 생활의 BGM으로 음악이 자리 잡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하지만, 또 지금은 음악이 전문적으로 정말 발달됐다. 제가 발라드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하우스풍, 디스코풍을 넣었는데 지금은 업템포 음악을 합부로 하면 안 된다. 아이돌 음악이 전문성이 높아지고 퀄리티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라며 "전 제 장르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요를 들으면 가요 티가 났고, 팝을 들으면서 팝 티가 났다. 그런데 지금은 구분이 안 된다. 우리나라 음악인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K-팝이 한류도 이끌고 심지어 BTS(방탄소년단), 싸이가 빌보드도 휩쓴다. 선

배로서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승훈은 "사실 전 가요계 황금기의 수혜자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좋지만, 다만 하나의 장르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성장했으면 한다. 아이돌 음악, 혹은 힙합 음악 이렇게 한 곳으로 몰리지 않았으면 한다. 수면 위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올라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승훈은 데뷔 3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마이 페르소나스'를 8일 발표한다. 앨범명 '마이 페르소나스'는 '나의 분신 같은 음악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30년간 음악 외길인생을 걸어난 신승훈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담았다.

타이틀곡 '여전히 헤어짐은 처음처럼 아파서'는 앨범명 '마이 페르소나스'에 가장 부합하는 곡으로, 신승훈의 발라드를 5분으로 압축해 표현한 노래이다. 서정적이면서도 애잔한 스트링 사운드로 지금까지의 신승훈표 발라드 중 백미로 손꼽힐 만한 곡이다.

다른 타이틀곡 '그러자 우리'는 8분의 6박자 애절한 발라드 넘버로, 연인과 헤어짐의 먹먹한 감정을 담백하게 담아내며 긴 여운을 선사한다. 특히 국내 최고의 작사가 심현보와 양재선의 첫 합작품으로 기대감을 더한다.

'타투·담배' 한소희 과거 사진 재조명...과거 샐리니와 MV도 화제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한소희, 주인공 김희애와 맞먹는 화제성으로 시청률 상승에 알토란 같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소희가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지수에서 김희애에 이어 2위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특유의 시크한 이미지에 어딘지 모를 묘한 매력까지 겸비한 한소희는 데뷔 4년차인 올해 '부부의 세계'로 드디어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불륜을 소재로 한 '부부의 세계'가 대히 최고시청률을 기록, 두 자릿수 시청률까지 넘기는 등 신드롬급 인기를 끌면서 한소희는 더욱 시청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와함께 한소희는 유명세를 특별히 치르고 있다.

데뷔 전 매력적인 미모로 '인스타 여신'이라 불리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기도 했던 한소희는 '부부의 세계' 인기로 인해 과거 흡연, 타투 사진이 재조명 반기에 이르렀다.

한소희는 과거 SNS 사진에서 여러 차례 흡연하는 사진을 게재했고 양쪽 팔이 타투로 가득한 모습이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 NAVER에서 '한소희'를 검색하면 연관된

색어로 '한소희 타투' '한소희 담배' 등이 노출되고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문신이나 담배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지만 여자 연예인에게는 아직도 엄격한 잣대가 사라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 다.

현재 한소희는 타투를 제거한 상황이고 그의 SNS에는 사진 또한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한소희가 인기를 끌자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진들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입에 담배를 물고, 팔 인쪽에 타투를 그려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또 한소희가 2016년 샐리니 'Tell Me What To Do' MV 출연 장면도 다시 화제를 끌고 있다. 특히 한소희가 다소 거친 모습에 담배를 물고 있는 등장인에 많은 누리꾼들이 관심을 나타냈다.

2017년 SBS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로 연기 생활을 시작한 한소희는 tvN '백일의 낭군님', '어비스', '돈꽃'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현재 한소희 과거모습을 놓고 온라인상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담배 물고있는 모습 매력적이다" "역할에 잘 맞게 케이스팅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된다"라며 논란될 이유가 없다는 반응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상반된 과거 이미지다" "과거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SNS에 올리는 건 좀 아니다"는 반대 의견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묘한 매력에다 예쁘고 젊은 여다경(한소희)과 유부남(박해준) 이태오와의 관계, 지선우(김희애)와 엮여질 뻔했던 긴장감 등 이들 셋을 놓고 벌어질 앞으로의 이야기에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 '부부의 세계' 인기는 계속 올라갈 전망이다.

소지섭♥조은정, 혼인신고 전 가족들 앞에서 이미 '결혼식' 올렸다

절친 정준하 "아직 만나지 못해 선물이라도 해야겠다"

배우 소지섭(43)과 OGN 아나운서 출신 조은정(26)이 최근 직계 가족들 앞에서 소규모로 결혼식을 치렀다.

소지섭의 소속사 51K 측 관계자는 8일 뉴스에 "소지섭과 조은정이 최근 직계 가족들을 모시고 소규모로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소지섭의 절친한 연예계 동료인 정준하는 지난 7일 오후 방송된 KBS 라디오 토크쇼 '윤정수 남장희의 미스터 라디오'에 출연해 "(소지섭이) 결혼식을 벌써 했다"라며 "가족끼리 소규모로 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해서 따로 좋은 선물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소지섭의 소속사도 7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소지섭씨가 소중한 인연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며 "지난 2019년 열애를 인정했던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하고, 7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인 부부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같은날 뉴스1에 "소지섭씨가 나이가 있고, 조은정씨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오다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했다"며 "혼전임신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지섭도 이날 소속사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테지



만 내를 긴 시간 신중히 내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그동안 저를 오랜 시간 지지하고 믿어주시

것처럼 앞으로도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인사를 전했다.

'사랑의 콜센타' 이찬원도 당황한 과거 폭로...장민호 "여보" 전화에 깜짝



'미스터트롯' TOP7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수하기 너머 의문의 인물들에게 과거사가 폭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9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 (이하 '사랑의 콜센타') 2회에서는 TOP7의 숨겨진 과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신청자들이 대거 등장, 현장을 '혼란의 카오스'에 빠트린다. 먼저 대구의 한 신청자는 전화 연결에 성공하자마자 이찬원을 지목하며 "찬원씨 제 목소리 아시겠어요?"라고 물어 모두의 귀를 집중시켰다.

신청자는 "이찬원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전해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한데 이어 한술 더 떠 "찬원이 여자생들을 만날 때면..."이라고 운을 뗐고, 이에 이찬원은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으로 폭소를 자아냈다.

'파국의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말형 장민호의 숨겨왔던 '여보'가 등장해 스튜디오를 초토화 시켰던 것. 이 신청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장민호 여보입니다"라고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고, TOP7은 "우리 몰래 결혼했느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크게 당황한 장민호는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고, 급기야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며 치열한 진실 공방전이 펼쳐졌다.

제작진은 "첫 방송 시청률이 23.1%에 달했을 뿐 아니라, 첫 방송 몇 시간 전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도 동점 인원이 무려 5만 명이 달하는 등 시작 전부터 '사랑의 콜센타'에 뜨거운 반응이 이어져 제작진도 놀랐다"고 전하며 "트롯맨들의 노래 실력만큼 빼어난 입담이 펼쳐지는 '사랑의 콜센타' 2회에 많은 성원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